

전여대협 지역별 주체 회의(임시의장 및 지역별 주체로 구성)

400차 수요집회를 마치고 이제 교정으로 돌아가실 대표자 여러분들!!

새내기들의 술렁임 속에서 우리의 투쟁을 총화하고 어떻게 그들 속에서 투쟁을 일궈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여학우 대중과 여성민중을 생각하며 더욱 힘차게 살아갑시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모범으로 강화되는 여학생운동을 만들어 갑시다.

1. 400차 수요집회 간단하게 총화
2. 400차 수요집회 총화틀
3. 3월 8일 어떻게...
4. 3,4월에 대한 고민 총화
5. 다음 회의는 언제...

(-400차 수요집회 총화, 3/8 총화, 3,4월 사업계획 토론 확정, 총노선 초안 제출)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6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남대 여학생회 · 과여학생회
여학생위원회 · 여성학 소모임
우리의 내용을 풀어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

우리는 여학생회활동, 여위나 소모임활동을 하며 여러가지 고민을 한다. 가장 크게는 학생회와 다른 이 조직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나가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한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낼것인지까지 말이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여학생을 위한 활동을 하는 우리들이 한해를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하나. 독자적인 사업으로 풀어내보자

1. 여학생 총회

과여학생회에서 가장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과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총회와 똑같은 위상을 가진다. 실제로 국문과 여학생회에서는 한학기 한번 여학생 총회를 통해, 여학생회의 한해 살이를 모든 여학우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밖에 여학생회장을 선출하기도하고 집행부를 인선하기도 한다. 그리고 함께 뒷풀이를 떠난다면 여학우들의 단합의 장까지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2. 여학생 문화제

총여학생회밖에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다. 여학우들을 생각하며 판을 고민하되 남학우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는 말자. 과별 대항 장기자랑 경연대회,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상영등 여학우들이 공동체의식을 느낄수 있도록 기획해보는 것이다. 초청가수와 경품추첨이 있다면 더 잘되지 않을까?

3. 여학생 모꼬지

모든 단위에서 가능하다. 실제로 총여의 큰들살이, 문여의 여울자리, 과여학생회의 여학생모꼬지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횟수를 늘리거나 내용을 채워가는 문제가 남았다.